

마법의 지팡이 'S펜'... 갤럭시와 10m 이내 완벽 연동

체험기

언택 행사장서 사전 공개
삼성전자 '갤럭시 노트 10'

'S펜'을 스마트폰 필수 도구로
좌우로 움직이면 촬영모드 등
카메라 기능 모두 통제 가능

후면 ToF 카메라, 3D공간 인식
초음파 지문인식장치도 개선돼

직접 만져본 '갤럭시 노트 10'은 빈틈
이 없었다. 최근 주가를 올리는 콘텐츠
크리에이터들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
잡기 충분했다.

무엇보다 눈에 띄는 기능은 단연 'S
펜'이었다. S펜은 마치 마법의 지팡이
처럼 갤럭시 노트10을 마음대로 움직일
수 있게 했다. 갤럭시 노트 10은 S펜 활
용도를 확장했던 전작에서 더 나아가,
S펜을 스마트폰 필수 도구로 자리잡게



했다.

새로운 S펜은 카메라 촬영 버튼은 물론,
카메라 기능을 모두 통제할 수 있게
만들었다. 카메라 모드 변환, 전·후면
카메라 전환, 카메라 줌인과 특수 효과

까지 적용할 수 있다.

S펜 버튼을 누르고 단
순한 제스처만 취하면 된다.
좌우로 움직이면 촬영
모드를, 상하로 움직
이면 전후면 카메라를
바꿔준다. 카메라 렌즈
처럼 한바퀴 돌리면 줌
인이나 줌아웃도 가
능하다.

인식률은 매우 뛰
어났다. 처음 시도
했을 때는 마음대
로 움직이지 않
았지만, 긴장을
풀고 쉽게 조작
하니 자유자재
로 카메라를

원격 조정할 수 있었다.

동영상을 촬영하면서는 스타일러스
가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직접
느끼게 해줬다. 얼굴에 그림을 그리는데
따라 특수 효과를 만들어냈고, 공간을

읽어내 3D 그림도 그릴 수 있었다.

동영상을 편집할 때도 마찬가지다.
간단한 편집은 물론, 글씨를 쓰거나 그
림을 그리면 마치 원래 공간에 있었던
것처럼 그대로 반영해줬다.

역시 비결은 기술력이다. S펜에 자이
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추가했다. 갤
럭시 노트10과 10m 이내에서는 얼마든
지 허공에 펜을 움직이는 것만으로 완
벽하게 연동됐다.

S펜의 디자인도 이제 갤럭시 노트와
하나가 됐다. 유니바디를 적용해 매끄
러운 몸매를 갖게 됐다. 배터리도 더 오
래간다.

초음파 지문 인식 장치는 갤럭시 S10
보다도 잘 읽는다. 위치를 변경하면서
다. 특히 갤럭시 S10에서 지적됐던 비
침 현상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.

카메라는 후면 3개에 전면 1개로 오
히려 갤럭시 S10보다 후퇴했지만, 갤럭
시 노트10+에 장착된 후면 ToF 카메라
는 3D 공간을 인식할 수 있어 무한한 확
장 가능성을 품고 있다. 삼성전자는 갤

럭시 노트 10+에 디지털 줄자 애플리케이션을
통해 ToF 카메라 활용안을 제
시했다.

삼성 텍스트도 이제는 기본 기능이다.
단말기 없이 US로 PC와 연결만 하면
윈도나 맥 환경에서 갤럭시 노트10을
가상머신처럼 동작할 수 있다. 윈도10
의 경우, 마이크로소프트와 삼성 계정을
한 번만 연동하면 같은 와이파이를
사용하기만 해도 자동으로 연동된다.

왼쪽 측면에 몰린 기능키는 다소 불
편할 수 있다.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,
전원을 끄려면 왼쪽 키 모두를 누르기
다시 스마트폰을 쥐어 잡아야 했다.
단, 커스텀마이징 기능을 기본 적용해
큰 무리는 없을 전망이다. 편의에 따
라 버튼 이용 방법을 바꿀 수 있다는
얘기다.

버튼키뿐 아니라 S펜 제어 기능 역시
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. 설정 메뉴
를 이용하면 마음대로 제스처 실행을
바꿀 수 있다.

/뉴욕(미국)=김재용 기자 juk@metroseoul.co.kr

포스코, 한 번에 3층 올리는 신공법 개발

P-Box기동, 보 접합공법
국토부 건설신기술로 지정

포스코가 고객사와 함께 개발한 'PO
SCO-Box 기동(이하 P-Box 기동)과
철근콘크리트보 접합공법'이 국토교통
부의 건설신기술로 지정됐다.

7일 포스코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지
진 발생으로 인한 내진설계 의무 건축
물 증가와 친환경 중시 등 건설산업 고
객사들의 요구에 맞춰 종합건설사인 포
스코건설, 한라, 한양, 호반과 설계 및
엔지니어링사인 피컴스와 공동으로 P
-Box 접합공법을 개발했다.

또 포스코는 강소고객사인 ㈜덕업테
크에 고강도강을 적용한 P-Box제품
제작을 할 수 있도록 강제이용기술을
지원해, 고객사의 기술력 향상과 매출
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.

이신기술 공법은 콘크리트를 채워 넣
은 P-Box강관 기동에 가로 방향의 철
근콘크리트 보를 접합한 것으로, 기존

철근콘크리트 공법보다 10~15% 공사비
를 절감할 수 있으며, 탄소배출량도 1.
5% 이상 저감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.

기존 철근콘크리트 방식이 한 층씩
쌓아 올려야 하는 것과 달리, P-Box강
관은 하나의 높이가 3층에 해당하는 15
m로 한 번에 3층씩 쌓아 올려 공사기간
이 대폭 단축된다.

특히 P-Box에 적용된 HSA600은 인
장강도 600메가파스칼(MPa)을 보증하
는 건축용 열연강재로, 굽힘과 용접 시
변형발생을 최소화한 포스코의 월드톱
프리미엄(WTP)제품이다. 현재 내진 성
능을 갖춘 인장강도 600MPa 이상의 열
연강재는 포스코만 생산이 가능하다.

건설신기술로 지정된 P-Box 접합공
법은 향후 8년간 보호기간이 부여된다.
국토교통부가 발주처에 신기술을 우선
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, 건설공사
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이 기술을
활용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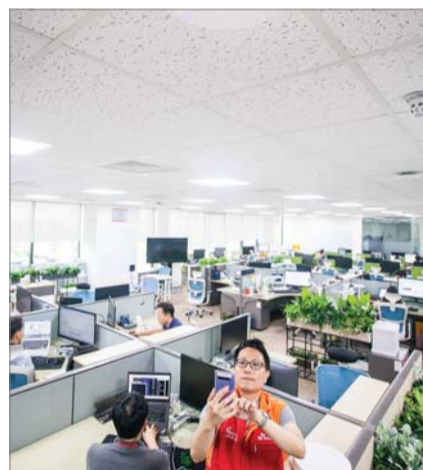
/양성윤 기자 ysw@

SKT, 실내 5G 속도 2배 높이는 기술 확보

'5GX 인빌딩 솔루션' 개발 성공
분당사옥에 시범적용 등 검증 완료
올 3분기 후부터 상용망 본격 적용

SK텔레콤은 실내 5세대(5G) 이동통신
속도를 두 배 향상시키고 지하철·쇼
핑몰 등 데이터 사용 밀집 지역의 트래
픽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'5GX
인빌딩 솔루션' 개발에 성공했다고 7일
밝혔다.

SK텔레콤은 자사 정보통신기술(IC
T)센터 내 국내 중소 장비 제조사들과
의 협력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해
기술 개발 및 최종 성능 검증을 완료했
다. 아울러 분당사옥 상용망에 '5GX 인
빌딩 솔루션'을 시범 적용했다. 해당 솔
루션은 올해 3분기 이후부터 상용망에
본격 적용된다.



SK텔레콤 구성원들이 분당사옥 5G 기지국에
'5GX 인빌딩 솔루션'을 적용해 최종성능 검증을
하고 있다. /SK텔레콤

이번에 개발한 솔루션에는 '4Tx-4R
x' MIMO를 지원하는 '액티브 안테나'
기술이 세계 최초로 적용됐다. '4Tx-4

Rx' MIMO기술을 활용하면 소형 실내
기지국인 '5G 스펙셀'에 데이터 송수신
용 안테나를 각각 4개 탑재할 수 있다.
기존 각각 2개의 송수신 안테나를 갖고
있는 '2Tx-2Rx' MIMO 기술 대비 데
이터 전송속도가 약 두 배 빠르다.

기지국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
리 용량도 롱텀에볼루션(LTE) 대비 최
대 16배까지 늘어난다. 이에 따라 지하
철이나 쇼핑몰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
도 지연 없이 원활한 5G 서비스 제공이
가능하다.

SK텔레콤은 지난 5월 영국 런던에서
열린 '스펙셀 어워드 2019'에서 세계 최
초 3.5기가헤르츠(㎐) 대역 RF 중계기
개발 공로를 인정 받아 수상하는 등 국
제적으로 5G 인빌딩 기술 우수성을 인
정 받고 있다. /김나인 기자 silkni@

현대로템, 1639억 이집트 전동차 수주

현대로템은 최근 이집트 교통부 산하
터널청과 약 1639억원 규모의 '이집트
카이로 메트로 2호선 전동차 공급계약'
을 체결했다고 7일 공시했다.

계약기간은 2019년 8월 6일부터
2023년 11월 6일까지이다. 이번에 계약
금액은 지난해 매출의 약 6.8%에 해당
한다. 현대로템은 올해 1월 1일부터 8월
7일까지 총 6건, 누적 금액은 1조 372억
원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.

앞서 현대로템은 지난해 12월 31일
이집트 터널청으로부터 1508억원 규모
카이로 2호선 48량 납품·유지보수 사업
을 낙찰받았다. 현대로템은 이번 사업을
통해 전체 20개 역사 총연장 21.6km



의 카이로 2호선에서 운행될 전동차 48
량을 2021년까지 터널청에 납품할 예정
이다.

카이로 2호선 48량은 8량 1편성의 총
6개 편성으로 이뤄졌으며 최고 시속 80
km의 운행속도를 낼 수 있다. 현대로템
은 이집트 더위에 대비해 객실 내 쾌적
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에어컨을 탑
재하는 등 카이로 1, 3호선 전동차 사업
을 수행하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
현지 운영에 최적화된 고품질 차량을
납품할 계획이다. /양성윤 기자

'우리집 지킴이' 서비스 출시

1인 가구, 휴가철 빈집 등을 노리는
도난과 주거침입 등의 위험으로부터 내
집을 지킬 수 있는 사물인터넷(IoT) 홈
보안 서비스가 출시됐다.

LG유플러스는 집안 내 침입을 감지
해 위급상황 발생시 112로 간편하게 신
고까지 할 수 있는 IoT 보안 기능을 갖
춘 '우리집 지킴이' 서비스를 출시한다
고 7일 밝혔다.

'우리집 지킴이' 서비스는 IoT 센서
를 통한 침입감지뿐 아니라 CCTV 녹
화를 통한 비디오 보안서비스에 사이렌
알림, 112 간편신고 기능까지 갖춘 종합
홈보안서비스다.

서비스 가입시 360도 파노라마 촬영
이 가능하다. 사람을 구분해 인식하는



가정용 CCTV 맘카와 창문이나 현관문
의 열림을 감지해 알려주는 열림알리
미, 적외선 센서로 어두운 밤에도 동작
을 감지해 사이렌을 울리는 움직임알리
미와 필요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선택기
기 1종까지 총 5종의 IoT 기기가 제공
된다.

예를 들어 선택기기로 간편버튼을 선택
하면 버튼 한 번으로 사전에 등록된
부모나 애인, 지인 등에 "우리 집 긴급

상황이 발생했습니다. 연락이 필요합니
다" 등의 SOS 문자를 송신할 수 있어 집
안에 있을 때 침입이 발생했을 경우도
대응할 수 있다.

우리집 지킴이 서비스는 도난이나 화
재 등의 피해가 입었을 경우 보험적용
을 통해 보상까지 지원한다. 도난은 최
대 500만원, 화재의 경우 최대 1000만원
까지 각각 보장한다. 서비스 이용료 이
외에 별도로 고객이 부담해야 할 보험
료는 없다.

서비스 이용 요금은 U+인터넷을 이
용할 경우 월 1만원(3년 약정기준, 부가
세 포함 1만1000원), 단독으로 이용할
경우 월 1만1000원(3년 약정기준, 부가
세 포함 1만2100원)이다. 해당 서비스
는 LG유플러스 전국 매장 및 고객센터
에서 가입 가능하다. /김나인 기자